

Sermon: Deaths Witnessed by a Physician

■ 오늘의 주 성경구절 : 히브리서 9:27 & 디모데전서 2:3-4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Everyone is welcome to worship with Incheon Internaional Baptist Church. 인천국제 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Today's main verses are Hebrews 9:27 and 1 Timothy 2:3-4.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히브리서 9:27절과 디모데전서 2:3-4절입니다.

『Hebrews 9:27』²⁷ *And as it is appointed unto men once to die, but after this the judgment:*

『히브리서 9:27』²⁷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1 Timothy 2:3-4』³ *For this [is] good and acceptable in the sight of God our Saviour; ⁴ Who will have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디모데전서 2:3-4』³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 Introduction 서론

As you know, many Koreans like to use the lunar calendar to remember things. 아시다시피 많은 한국인들은 여러가지 일들에 음력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And also, some of them like to use it because it gives an opportunity to start again. 또한 그들 중 일부는 음력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Anyway, today is the last Sunday of 2021 in terms of the lunar calendar. 어쨌거나, 오늘은 음력으로 2021년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So, I would like all of us to think about last moments of our lives before the lunar New Year begins on February 1st. 그래서, 2월 1일에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As a medical doctor, I have seen a lot of deaths in hospitals. 저는 의학박사로서 병원에서 많은 죽음을 보아 왔습니다.

Whenever I see deaths, they make me think about the meaning of life. 저는 죽음을 볼 때 마다,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At this time, I want to share with you the last times of five patients from child to old age. 저는 이 시간에 어린 아이부터 연로한 분까지 다섯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In other words, I will preach a testimony sermon entitled “Deaths witnessed by a physician.” in order for all of us to prepare the last moments of our lives so well.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의사가 목격한 죽음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us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to have eternal and everlasting life. I sincere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this morning would be saved and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In Jesus' precious name I pray. Amen.

2 Case 1 사례 1

A long time ago when I was working as an inter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one girl who w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was brought to an emergency room because of a sudden headache. 오래 전 제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여자 아이가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While various medical examinations were being performed, she asked her father to pray for her.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가 시행되고 있던 가운데 이 아이는 아빠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As her daddy was not a Christian, he did not reply to her asking. 그런데 불신자였던 그 아이 아빠는 딸아이의 청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The examination showed that she had severe brain swelling. 응급 검사 결과 뇌부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on she was moved to the Pediatric Ward and there she continued to ask her father to pray for her. 곧바로 병실로 입원한 그 아이는 병실에서도 계속 아빠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She believed in God and had gone to church with her mother.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고 엄마와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However her father didn't believe in God. 하지만 아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So in order to make her father a Christian, she begged him to pray. 그래서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 아빠에게 기도해 달라고 조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At that time one lady who is a Sunday school teacher at a certain local church, was in the same room with her. 마침 이 아이와 같은 병실에 있던 보호자 중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The lady prayed for the child so often that she could calm down. 이분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 때마다 아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편안해지곤 하였습니다.

In spite of the doctors' efforts, her symptoms were not improved. 그러나 아이의 증세는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After a few days, she lost her consciousness totally.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나 아이는 의식을 완전히 소실하였습니다.

The only thing she can do was to breathe with the aid of a respirator. 인공호흡에 의해서만 심폐기능이 겨우 유지될 뿐이었습니다.

As her brain lost its function completely, any medical handling was in vain. 뇌가 완전히 망가져 더 이상의 의학적 처치는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Her parents wanted their child to have her last time at home. 그녀의 부모는 아이가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였습니다.

For taking her home, a doctor should get in the ambulance to keep the respirator

breathing. 그런데 그녀를 집에 데려가려면 기도엔 인공삽관이 된 아이의 호흡 유지를 위해 앰블런스에 의사가 한 명 동승하여야 했습니다.

The chief resident of the pediatric department told me “Be with her” and I got in the ambulance to help her, and went to her home. 당시 소아과 병동의 수석전공의는 저에게 다녀오는 것이 어떨것냐고 하여 제가 아이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While her family was grieving with tears looking at her in bed at home, I told them that I would take off the respirator. 집에 도착하여 안방에 아이를 눕혀 놓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계속하던 인공호흡(AMBU bagging)을 멈추고 기도엔 삽입이 되어 있던 관을 제거하겠다고 보호자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Then her mother said to me “Doctor, give us time to sing a hymn for her.” and began to sing a hymn entitled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는 “선생님, 잠깐만요. 찬송을 부르고 나서요.”라고 말하며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All the people burst out crying while singing. 찬송을 시작하고 나서는 더욱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No one was singing because they were in panic. 찬송의 음정박자는 고사하고 가사가 뭔지도 알 수 없는 패닉 상태가 초래되었지요.

Considering I should help them, I sang the hymn with a loud voice and led them to sing correctly because that song is one of hymns which I was able to memorize. 그래서 이렇게 듣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큰 목소리로 410장을 부르며 (다행히 410장은 제가 외우고 있던 몇 안되는 찬송가 중의 하나였습니다) 가족들이 정확하게 따라 부르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After finishing from one to four verses, I asked them if I could take it off. 4절까지 마치고 제가 다시 보호자들에게 인공호흡을 멈추고 삽입된 관을 제거하겠다고 하자

However, her mother asked me to hold on again until after I prayed for her. 또 아이의 어머니가 “선생님, 잠깐만요.”하면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신 다음에 그렇게 해주세요.”라며 저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I was very embarrassed by an unexpected asking for prayer. 갑작스런 기도요청에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I thought it would be necessary that her father should pray together in order to make her death meaningful. 이 아이의 죽음이 의미가 있도록 하려면 아이의 아버지가 기도엔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I asked her father if we could pray together taking hands on his daughter’s chest. 그래서 아이 아버지에게 함께 아이의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Having a few seconds of silence, he knelt in front of his daughter’s body with hands on her chest and also her mother did so. 몇 초의 정막이 흐른 뒤 아이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고 또 어머니도 손을 얹었습니다.

Then I started to pray holding their hands.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손을 감싸고 나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Soo Yeong’s prayer request. 하나님 아버지, 수영이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Please make her daddy meet his beloved daughter some day in Heaven by receiving Jesus as his personal Saviour and Lord. ... 수영이의 아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하여 주세요.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t is true that our Lord always listens to the prayer of the righteous even though they are young.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et's read Proverb 15:29. 잠언 15:29입니다.

『Proverbs 15:29』²⁹ *The LORD [is] far from the wicked: but he heareth the prayer of the righteous.*

『잠언 15:29』²⁹ 주께서 사악한 자는 멀리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3 Case 2 사례 2

When I was a member of Onnuri Presbyterian Church, I got to know Elder Lee. 제가 온누리교회에 다닐 때 같은 순모임에서 알게 된 이춘봉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Elder Lee was about ten years older than me. 이 장로님은 저보다 연배가 십년 정도 위셨는데

He was not only a very devout Christian but also a man of generosity. 깊은 신앙심과 성숙한 인품을 지니셨으며

He treated me as if I were his real brother and I considered him as my mentor. 또 특별히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장로님을 멘토로 여기며

So we had lovely fellowship in God. 사랑의 교제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One day he told me that his right calf muscles began to stiffen, and it made him uncomfortable.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저에게 요즘 오른쪽 종아리 근육이 뭉쳐서 조금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He got acupuncture and massage, without any improvement. 침도 맞아보고 마사지도 받아 보았는데 별 차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When I saw his calf, it didn't look like simple stiffening. 저에게 보여주시는 종아리를 보니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아

I suggested him come to my hospital and get a complete medical checkup.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오셔서 정밀검사를 받으시라고 하였습니다.

It was confirmed as one of malignant muscular tumors by an MRI. MRI를 찍어본 결과 악성근육종의 하나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It was so rare disease that it was not easy to find the best doctor to deal with it. 매우 희귀한 병인지라 이 병을 잘 아시는 의사를 찾기 쉽지 않았는데,

After inquiring here and there about it, I recommended him to get surgery at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where the most experienced orthopedic doctor in Korea worked at that time.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 병에 대해 제일 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수소문하여 원자력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I had visited him many times when he was hospitalized there. 이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몇 차례 문병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One day he gathered many patients and told me to deliver a sermon to them. 한번은 이 장로님이 병실에 여러 환우들을 모으시고는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He said, "Wherever I am, every place is my mission field. Now I am in the hospital as a patient, so this hospital should be also a mission field of mine." 장로님은 "환자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내게는 병원이 선교지가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Hearing him I had no choice but to agree with his saying. 저는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So I delivered a sermon to many cancer patients while I broke out in much cold sweat. 그래서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After finishing it, he introduced to me one young man who sat in a wheelchair. 그리고 나자 이 장로님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청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He said to me that he had been praying for this young man who was in a most pitiable circumstance. 자신이 요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환우인데 사정이 매우 딱하다고 하셨습니다.

This patient was orphaned. 이 환자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he had worked as an electrician for ten years and had dreamed to marry.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전기기술자로 한 십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모아 장가도 가려고 하였는데

However, getting muscle cancer, he had surgery to remove the lower part of his body. 근육암이 생겨 하지 절단을 하게 되었고

Sadly, recurring again and again, the cancer spread to his lungs. 또 몇 차례 재발을 하여 현재는 폐에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로

His doctor said he might live one or two more months. 의사는 앞으로 한두 달밖에는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Under medical treatment he spent all of the money he gathered. 아울러 투병생활을 하느라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을 다 써버렸는데

His younger sister was the only family he had. 혈육이라고는 여동생이 하나 있지만

However, she was a disabled person. 그녀도 장애인인 데다가

She married, and lived far from him. 결혼을 했고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And also under poverty she was not able to visit him many times.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면회도 자주 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He often came to Christian meetings in the hospital, but sadly he didn't decide to accept Jesus Christ yet. 그는 기독교모임에는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I faced this man who was thirty two years old. 그리고 기독교모임에는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Seeing his shaven head, pale and lean face, and eyes longing for something, I gulped down tears. 뺨뺨 깎은 머리, 약간은 창백하고 야윈 얼굴, 무언가를 갈망하는 눈빛을 보며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Considering what I would say, I gave him all of money I had in my wallet. 그리고 무슨 말부터 꺼낼까 생각하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Please buy some food or what you want.” “이 돈으로 맛있는 것 사먹으세요.”

When he received the money without hesitation and smiled, I prayed quickly to God. “God, please take pity on this soul.” 서슴없이 돈을 받고서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번개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I started to spread the Gospel to him right away. 그리고는 직설적으로 복음(福音)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I want to give you a very precious present which is the Eternal Life. 저는 태형씨에게 매우 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생(永生)이란 선물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This is the gift from God not from me. 물론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You will leave this world before long. 태형씨는 얼마 후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요.

Leaving this world is not the end.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Going to Heaven or hell.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Having Jesus as your Saviour and Lord, and getting forgiveness from Him, you will go to Heaven or without forgiveness go to hell.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를 용서 받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 죄가 그대로 있게 되면 지옥으로 갑니다.

Will you have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and Lord in your heart? 예수님을 태형씨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들이시겠습니까? ”

Without hesitation he prayed.

그러자 그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영접기도를 하였습니다.

“Lord Jesus, please give me mercy.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I am a sinner. 저는 죄인입니다.

I don't want to go to hell.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I believe that Jesus died upon the cross for my sin and revived.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From this time I receive Jesus as my personal Savior and Lord.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저의 인격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들입니다.

Thank you for giving me Grace of Salvation. Amen. 저를 구원해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Finishing his prayer, he whispered with a bright smile that he felt so good as if he had been fully cured from severe indigestion. 영접기도를 하고난 후 이 청년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속이 무언가 없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땀 뚫린 것처럼 시원해요.”라고 혼잣말처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I had heard some news of him from Elder Lee that this young brother participated in all worship services and prayer meetings eagerly, he spent all the time in the hospital full of joy and his face was full of peace even when he left this world about one month

thereafter. 그리고 이 장로님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이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모든 예배와 기도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늘 기쁘게 병실 생활을 하였으며 약 한 달 뒤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얼굴에 평안이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Let's read Acts 2:28. 사도행전 2:28을 보시겠습니다.

『Acts 2:28』²⁸ *Thou hast made known to me the ways of life; thou shalt make me full of joy with thy countenance.*

『사도행전 2:28』²⁸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 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4 Case 3 사례 3

Elder Lee did work as a hospital missionary very well. 이 장로님은 병원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With this being said his health was gradually getting worse. 하지만 이 장로님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Although he got surgery to have his right leg removed and several times of chemotherapies, the cancer spread to his spine and he mov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과 수차례의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척추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급기야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계속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He had spent very very painful times everyday because of spine metastasis. 그러나 척추에 퍼진 암세포로 인해 하루의 대부분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내시게 되었는데

Whenever pain was so severe and made him roll over and over on his bed, he struggled against the pain by reciting Bible verses without ceasing. 고통이 심해 침대에서 떼굴떼굴 구르실 때마다 쉬지 않고 성경구절을 암송하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셨습니다.

One day when I thought about it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that he would not have many days before leaving, I asked him an earnest request. 의학적으로 볼 때 이 장로님이 주님께로 가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던 어느 날 저는 이 장로님께 특별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Elder Lee, I am sorry to ask this. 장로님, 송구스럽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I might not ever get to hear you pray if I miss this chance. 지금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Would you pray to bless me?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겠습니까?”

He had not been able to move his body on his bed, but after a moment he sat on the bed, put his hands on my shoulder, and prayed for me with an impassioned blessing like water coursing over a waterfall. 침상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시지 못하시던 이 장로님은 잠시 몸을 추스르시고 앉으신 후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는 폭포수와 같은 뜨거운 기도로써 저를 축복해주셨습니다.

And a few days thereafter, he moved to God's arms. 그리고 며칠 후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Let's read James 1:12. 야고보서 1:12을 보시겠습니다.

『James 1:12』¹² Blessed [is] the man that endureth temptation: for when he is tried, he shall receive the crown of life, which the Lord hath promised to them that love him.

『야고보서 1:12』¹²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冠)을 받으리라.

5 Case 4 사례 4

Long time ago I was told by Mrs. Sung that her father was not saved yet, and furthermore he abhorred Christianity very much. 오래 전 성 자매에게 아버지께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고,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So I had been praying for his salvation since thereafter.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그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Meanwhile, I was told by Mrs. Sung that her father was hospitalized due to severe respiratory difficulty at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where I was working. 그러다가, 성자매에게 아버지께서 심한 호흡곤란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가천대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Immediately after I heard the news, I got to have two different thoughts in my mind.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Firstly, it would be a very good opportunity for him to hear the Gospel and get saved. 첫째는 그분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었고

Secondly, it would be a very heavy burden for me to share the Gospel with him because I am so busy. 둘째는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분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심한 부담감이었습니다.

Next day, in order for him to be managed so well, I asked the favor of the professor who was assigned to take care of him. 다음 날, 그분을 잘 돌보려고, 담당 교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And then, I came to visit him that evening after I finished my work. 그리고 나서, 일을 마치고 저녁 때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Unexpectedly he welcomed me in spite of difficult breathing. 뜻밖에도 아버님은 숨쉬기도 힘든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I gave him some words of comforting and blessing for several minutes. 저는 잠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And then, I asked him like this: 그리고 나서,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Would you mind if I pray for you here and now? 지금 제가 아버님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He said to me like this: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 don't want you to pray for me.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원치 않아요.”

Then I informed Mrs. Sung of this happening. 저는 이 일을 성자매에게 알렸습니다.

A few days thereafter I was told that her father accepted my request. 며칠 후 성자매의 아버지께서 제 부탁을 승낙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So I visited him again and had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Jesus to him like this: 그래서 다시 찾아가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찾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Jesus is the Creator;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He is the Saviour and the Lord; 그분은 구원자이며 주님입니다;

He is the only way to Heaven. 그분만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Then, I prayed for him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Meanwhile, I asked the chaplain of the hospital to come to pray for him. 한편, 병원 목사에게 그분을 위해 기도하러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When I visited him the third time, I could not talk to him, 제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저는 그분께 말할 수 없었는데,

because he slept although he had difficulty in breathing. 숨을 쉬기 힘든데도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 few days thereafter his general condition was more aggravated. 며칠 후 그분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I thought that it might be soon for him to pass away.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I directly and strongly preached the Gospel like this: 그래서 직접적이고 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There is only two places where we go after we die. 죽으면 가는 곳이 두 곳 밖에 없습니다.

Unless your sins are forgiven, you have to go to hell. 당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합니다.

Do you admit that you are a sinner to deserve hell? 당신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He said, Yes. 그는 예 라고 말했습니다.

Then I continued to say,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to forgive you.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He shed His precious blood to cleanse all your sins.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자신의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믿습니까?”

He said, Yes. 그는 예 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ought that he was almost persuaded, and that it would be the time for him to pray ‘sinner’s prayer.’ 이제 거의 설득이 되었으니 “죄인의 기도” 를 할 따라고 생각했습니다.

In order for him to receive Jesus sincerely and definitely, I thought that it would be the best for him to read the written sentences of sinner’s prayer. 그가 정말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글로 적혀 있는 죄인의 기도를 읽도록 하는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However, he had a very bad sight, he needed papers written with very big letters. 하지만, 그는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아서, 아주 큰 글자로 씌여진 종이가 필요했습니다.

So, I had to go to other building to print out the papers of sinner's prayer. 그래서, 저는 죄인의 기도를 종이에 인쇄하기 위해 다른 건물로 가야 했습니다.

At that time, I realized that much fervent prayers should be done right now for his salvation in order to resist the attack of the Devil. 그 때, 저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의 구원을 위해 많은 뜨거운 기도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Thus, I sent the message to Kakaotalk chatting room of IIBC to pray for him. 그래서, IIBC 채팅방에 그분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Then I brought papers written with 16 point letters, but he could not read them. 그리고 16포인트로 인쇄된 종이를 가지고 갔지만, 그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So, I had to make another papers of sinner's prayer written in 32 point letters. 그래서 저는 32포인트로 죄인의 기도를 다시 인쇄해야 했습니다.

Then he could read all the sentences while he was breathing with great effort and oxygen supplied. 그리고 나서 그는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으며 애써 숨을 쉬는 가운데 모든 문장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After he read the Gospel or the sinner's prayer, I asked him once again like this: 그가 그 복음, 죄인의 기도를 읽은 후, 저는 다시 한 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Do you admit that you are a sinner to deserve hell? 당신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Nodding his head, he said Yes.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라고 말했습니다.

“Do you believe Jesus Christ died for your sins on the cross? 당신은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He also nodded his head, and said Yes.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라고 말했습니다.

“Do you believe Jesus rose again to conquer the power of Death and hell? 당신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습니까?”

He said Yes, nodding his head.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라고 말했습니다.

“Do you want to accept Jesus Christ as your own personal Saviour and Lord?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 구원자와 주로 받아 들이고 싶습니까?”

He nodded his head, and said Yes.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예 라고 말했습니다.

Praise the Lord for that! 주님을 찬양합니다!

Then, I prayed to bless him. 그리고, 저는 그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When I finished praying, I could find out that his countenance became very peaceful. 기도를 마칠 때, 저는 그의 모습이 아주 평안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A few days thereafter, I visited him, and read Revelation chapters 21 and 22 to him, and prayed for him. 며칠 뒤, 저는 그를 방문해서 요한계시록 21, 22장을 읽고,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When I finished praying, he said Amen, loudly! 제가 기도를 마칠 때, 그는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Soon thereafter his status was much improved and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곧 그의 상태가 아주 호전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However, he had to be hospitalized and discharged several times since he got saved. 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은 후 몇 번이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Whenever I met him, he continued to ask me to pray for salvation of his unsaved family members. 제가 그를 만날 때 마다, 그는 제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부탁했습니다.

Six months after he became the son of God, he went to Heaven, leaving a prayer request for his unsaved sons, daughters, and grandchildren.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여섯 달이 지나, 그는 구원받지 못한 아들, 딸, 손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을 남긴 채 하늘로 갔습니다.

Let's read Acts 16:31 and 1 Corinthians 7:16. 사도행전 16:31과 고린도전서 7:16을 보시겠습니다.

『Acts 16:31』³¹ *And they said,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u shalt be saved, and thy house.*

『사도행전 16:31』³¹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1 Corinthians 7:16』¹⁶ *For what knowest thou, O wife, whether thou shalt save [thy] husband? or how knowest thou, O man, whether thou shalt save [thy] wife?*

『고린도전서 7:16』¹⁶ 오 아내여,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6 Case 5 사례 5

About a decade ago, the father of my senior doctor with whom I have had a relationship like a real brother was hospitalized in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where I am working. 십여년 전 평소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오고 있는 선배 교수의 부친께서 제가 근무하는 가천의대길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I felt fortunate at a moment when I heard his father was staying at my Hospital because my senior and I graduated from the same high school and same university, furthermore under same belief, each family had kept in frequent contacts and I had known his father's situation well.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믿음을 소유하였기에 가족들 끼리도 매우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가정이라 그 부친의 상황도 잘 알고 있었는데 입원하셨다니 일순간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Especially knowing that his father didn't get saved until he was 99 years old, I had been praying for his father's salvation everyday. 특히 그 부친께서 당시 99세이셨음에도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오래 전부터 그 부친의 영혼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해오고 있던 터라

Anyway I went to his room under a burden. 약간은 부담을 느끼며 병실로 찾아뵈었습니다.

At first I visited him to pray for his curing with other Christian doctors, but when I

saw him my burden became heavier. 처음에는 여러 동료 크리스천 교수들과 함께 방문하여 잠시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나왔는데 막상 만나 뵈고 나니 마음에는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Feeling that he might not recover, I got a more grievous burden of spreading the Gospel to him. 아마도 이번에는 회복되어 퇴원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서자 복음을 바로 전해야겠다는 중압감이 밀려왔습니다.

After work, I visited him again. 일과 후 병실로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I told him who Jesus is but he showed no response.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렸는데 듣기는 들으시나 반응을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His difficulty in hearing bothered me even though I spoke very loudly. 특히 귀가 어두워 큰 소리로 말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From my senior doctor I heard that his father had good sight to read newspapers but there were some happenings related to his hearing problem. 선배 교수의 말로는, 그 부친께서 신문을 읽으실 정도로 시력은 좋으시나 청력은 상당히 안 좋으신데

One day a police man came to visit him after one of his neighbors called because he had turned up the volume to maximum when watching TV. 텔레비전을 보실 때 볼륨을 최대로 올리시기 때문에 이웃의 신고를 받고 파출소에서 나온 적도 있을 정도라 하였습니다.

So I used a white board to deliver the Gospel. 그래서 다음부터는 칠판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y talking and writing again and again, he started to understand and show interest. 말하고 쓰고 말하고 쓰고를 반복하는데 차츰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On Saturday morning when I visited him again after finishing the rounding of my patients he welcomed me. 그리고 토요일 오전 제가 회진을 마치고 다시 방문을 하자 어느 날보다도 저를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At this time, I explained the Roman Road to salvation using the white board for more than one hour. (Roman Road, Romans 3:10,12,23; 5:12; 6:23a; 5:8; 6:23b; 10:9,10,13) 이번에는 한 시간 이상에 걸쳐 보다 구체적으로 구원의 길 (Roman Road, 롬3:10,12,23; 5:12; 6:23상; 5:8; 6:23하; 10:9,10,13)을 칠판에 써서 설명하였습니다.

And then I asked him. 그리고 나서 여쭙보았습니다.

“Will you accept Jesus as your Saviour and Lord?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He nodded.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I wrote the core subject about salvation on the board and asked him if he agrees with it. 다시 핵심 사항을 칠판에 적으면서 동의하고 믿으시는지 여쭙보았는데,

He said that he is a sinner deserving to go to hell and he believes that Jesus solved all sins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three days later. 본인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사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는 믿으신다고 하시며

He confessed and accepted Jesus as his Saviour and Lord. 소리 내어 영접기도를 하셨습니다.

A few days thereafter he heard God's calling. 그리고 며칠 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

습니다.

It is true that God is longsuffering, even for more than 99 year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년 이상도 기다리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Let's read 2 Peter 3:9. 베드로후서 3:9을 보시겠습니다.

『2 Peter 3:9』⁹ *The Lord is not slack concerning his promise, as some men count slackness; but is longsuffering to us-ward,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

『베드로후서 3:9』⁹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7 Conclusion

Now, I will conclude my testimony sermon. 이제, 제 간증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We are destined to death from birth.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에 있습니다.

However, there is no order to death. 하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Old aged, middle aged, young adults, and even kids can leave this world at any time. 나이든 분, 중년, 청년, 심지어 아이들도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This coming lunar new year I wish that all lost souls around us would move from Death to Life by God's grace. 이 음력 설에 우리 주위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today's main verses. 오늘의 주 성경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Hebrews 9:27』²⁷ *And as it is appointed unto men once to die, but after this the judgment:*

『히브리서 9:27』²⁷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1 Timothy 2:3-4』³ *For this [is] good and acceptable in the sight of God our Saviour;* ⁴ *Who will have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디모데전서 2:3-4』³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Let's pra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us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which cleanseth us from all sin. Now I earnestly pray that all members of IIBC would share the Gospel with lost souls that they move from Death to Life by your grace. In Jesus' precious name I pray. Amen.